



numbers

vol. 231

개신교인의 신앙 계승 실태

주 1회 이상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14%!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미국 개신교의 가족 종교화 실태
- ② 2024 청년의 삶 전망

2024. 3. 12.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주 1회 이상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14%

최근 한국교회 관련한 여러 조사 결과에서 가족 종교화 현상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 청소년 중 부모가 1명이라도 기독교인 비율이 86%일 정도이니(넘버즈 214호) 미래의 교회는 가족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 한국교회탐구센터는 지앤컴리서치와 함께 어릴 때부터 신앙 생활을 해온 성인 교인을 대상으로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흐름과 변화를 파악하는 의미 있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관련 연구 결과가 올해 상반기 중 IVP를 통해 출판 될 예정인데 넘버즈에서 미리 일부 내용을 공개한다.

주요 결과로는 부모 세대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세대 신앙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한 노력은 3040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교회 내 믿음의 약한 고리인 3040세대의 신앙 약화가 다음 세대의 신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데이터이다. 또한 가정에서 신앙을 나누고 계승할 수 있는 가정예배의 경우 주 1회 이상 드리는 비율은 14%로 7가구 중 1가구에 도 못 미쳤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인의 가족 신앙에 대한 조사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조사 대상	전국 만19세~59세 남녀 중 첫 교회 출석 시기가 초등학교 전(미취학 시절)이며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개신교인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 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이메일을 통해 URL발송)
표본 추출 방법	개신교인의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추출
표본 오차	무작위 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7월 28일 ~ 8월 11일 (15일간)
조사 의뢰 기관	한국교회탐구센터
조사 수행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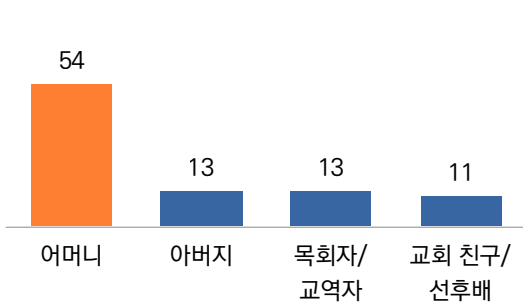
01

[본인 신앙] 나의 신앙, '어머니'의 영향 절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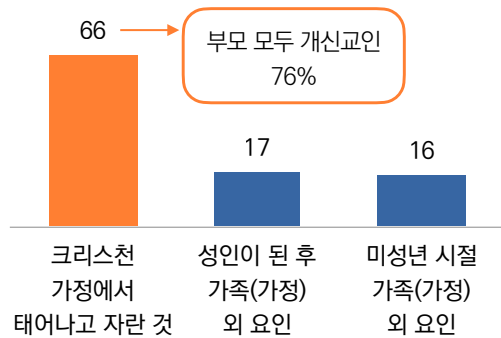
- 자신의 학창 시절 신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을 물은 결과, '어머니'가 54%로 압도적 1위였고, 이어 '아버지'와 '목회자/교역자'가 각각 13%로 나타났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어머니가 신앙의 모델링 대상인 셈이다.
- 이번에는 현재 크리스천으로서의 신앙적 성향 및 정체성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을 물었더니 응답자 3명 중 2명(66%)이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이라 응답했는데, 특히 부모 모두가 개신교인인 경우는 76%로 더 높았다. 어린 시절 '신앙적'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주) 본 조사는 초등학교 이전부터 교회를 출석하여 신앙을 이어 받은 만19~59세의 성도에 국한하여 조사한 것임에 유의할 것

[그림] 학창 시절 신앙에 영향 미친 사람 (상위 4위, %)



[그림] 현재 신앙적 성향에 영향 많이 받은 것 (상위 3위, %)



02

[부모 신앙의 계승]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신앙 수준 높아!

- 부모의 신앙 수준은 자녀의 신앙 수준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을 아버지/어머니의 신앙 수준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수준과 응답자 본인의 신앙 수준이 비례했다. 부모의 신앙 수준이 높을수록 현재 자녀 세대의 신앙 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표] 본인의 신앙 단계와 부모님 신앙 비교 (%)

		나의 신앙 수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체		19	28	33	20
아버지 신앙 수준*	1단계	33	26	27	15
	2단계	20	43	20	18
	3단계	15	30	45	10
	4단계	10	21	35	34
어머니 신앙 수준*	1단계	33	30	17	20
	2단계	26	37	21	16
	3단계	21	31	42	7
	4단계	11	27	31	32

*본인이 평가한 부모님의 신앙 수준임

Note) 신앙의 단계가 높을수록 신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다음의 4단계로 구분

1단계 :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내 삶에 큰 비중 차지하지 않음

2단계 :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나, 아직은 신앙에 대해 배워가는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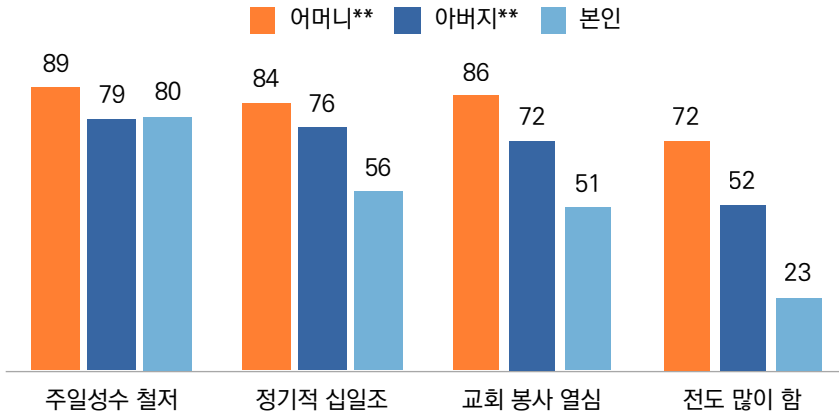
3단계 :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는 편임

4단계 :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고 있음

나의 신앙, 부모님의 신앙만 못해!

- 학창 시절 부모님의 신앙과 현재 본인의 신앙 생활을 주일성수, 교회 봉사, 전도 등의 항목을 통해 각각 평가토록 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부모님의 신앙보다 자신에 관한 신앙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부모님과 비교했을 때 자신의 신앙이 많이 약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 신앙 형태별로 보면 특히 '전도'와 '교회 봉사' 등 교회 활동 부분에서 부모 세대와의 신앙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그림] 신앙 생활 평가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4점 척도

**부모님 평가의 경우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출석자 대상 질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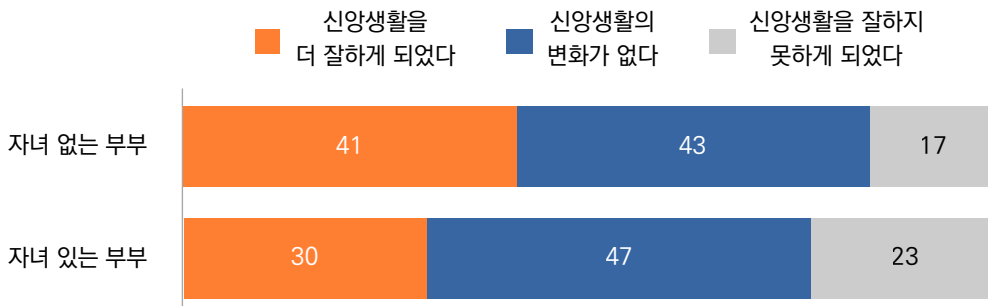
03

[자녀 신앙 양육]

자녀 있는 부부, 자녀 생기기 전보다 신앙생활 더 못해!

- 결혼 후 신앙생활 변화가 있었는지를 묻고, 자녀 유무별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자녀 없는 부부의 경우 결혼으로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되었다'가 41%로 '잘하지 못하게 되었다'(1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결혼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자녀 있는 부부의 경우 자녀 없는 부부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하게 됨' 비율이 11%p 떨어져 육아의 어려움이 신앙생활을 원활히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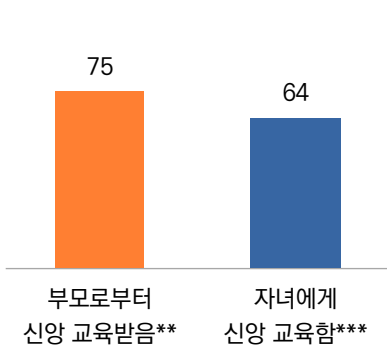
[그림] 결혼 후 신앙생활 변화 (기혼자, %)



내가 자녀에게 하는 신앙교육, 부모에게 받은 것에 비해 부족!

- 학창 시절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와 본인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지를 각각 물었다. 먼저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75%인데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보다 낮은 64%로, 부모 세대가 나에게 했던 것보다 본인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예배, 헌금 등 4개 신앙 관련 항목에 관해 '학창 시절 부모님이/본인이 자녀에게' 강조한 정도를 각각 묻은 결과 전반적으로 자녀에게 신앙에 대해 강조하는 비율이 부모로부터 강조받은 비율 대비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신앙교육 계승 여부
(‘자주+가끔 가르침’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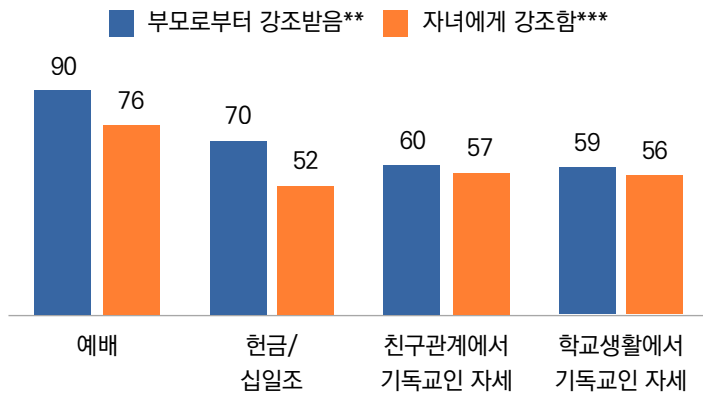


*4점 척도

**부모 한 분 이상 개신교인 대상

***자녀 있는 개신교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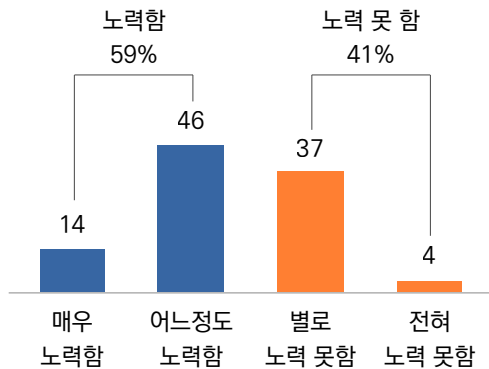
[그림] 강조한 신앙 관련 교육(‘매우+약간 강조’ 비율*, %)



자녀 신앙 양육 노력, 3040세대에서 가장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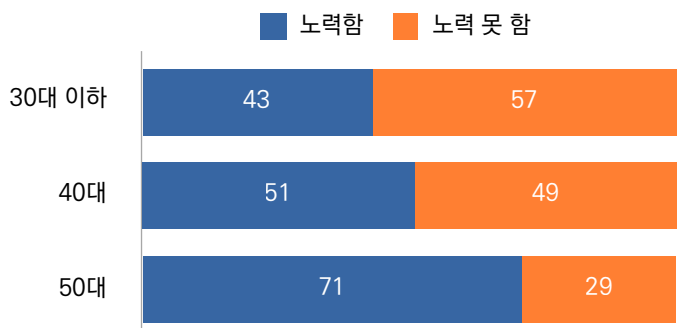
- 자녀를 둔 응답자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노력함’ 59%, ‘노력 못 함’ 41%로 자녀가 있는 교인 10명 중 4명 정도는 자녀의 신앙적 양육을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 반면, 신앙 양육을 위해 ‘매우 노력’ 한다는 적극적인 부모는 14%에 불과했다.
- 또한 연령대가 낮을수록 ‘노력 못 함’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30대 이하(57%)와 40대(49%)의 경우 ‘노력 못 함’이 ‘노력함’ 비율보다 높아 3040세대에서 신앙 계승 단절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림]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한 노력
(자녀 있는 응답자,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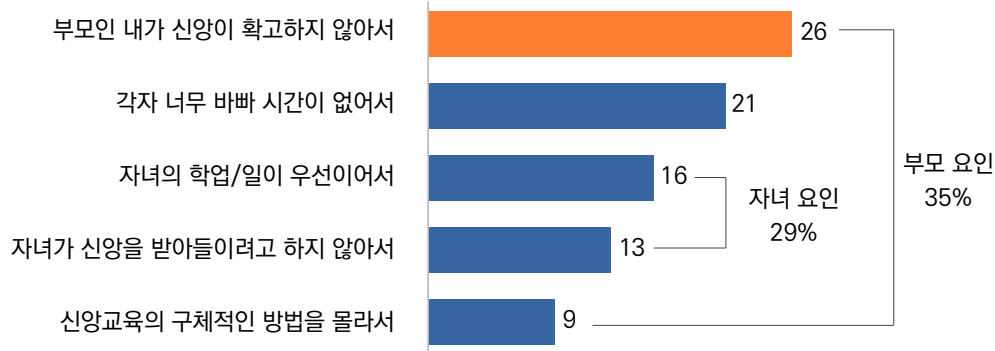
[그림] 연령별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한 노력* (자녀 있는 응답자, %)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 못 하는 이유, ‘나의 신앙이 약해서!’

-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 ‘부모인 내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가 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21%, ‘자녀의 학업/일이 우선이어서’ 16%,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 13% 등의 순이었다. 부모 요인(신앙 약함+교육 방법 모름)과 자녀 요인(학업 우선+비신앙)으로 묶으면 각각 35%, 29%로 부모 자신의 요인이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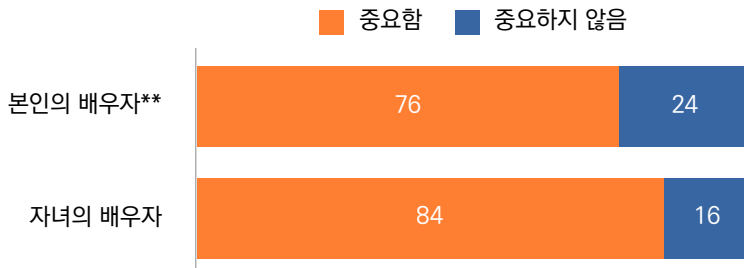
[그림] 신앙적 양육의 걸림돌 (자녀 신앙 양육 못 하는 응답자, 상위 5위, %)



본인 결혼시보다 자녀 결혼시 배우자 종교 더 중요!

- 본인 혹은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종교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기혼자 대상) 4명 중 3명(76%)은 ‘본인의 배우자’를 정할 때 ‘종교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응답했고, ‘자녀의 배우자’의 경우 대부분(84%)이 ‘중요하다’고 인식해 본인 결혼시보다 자녀 결혼시의 배우자 종교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와 그 가정에 기독교 신앙이 계승되길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배우자 선택할 때 종교의 중요도* (%)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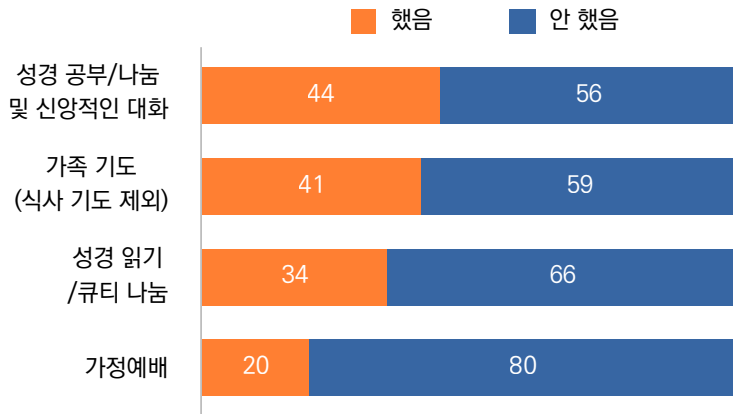
**기혼자 대상

04

[가정 신앙 활동]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 20%!

- 지난 한 달 동안 가족과 함께 한 신앙 활동으로는 '성경 공부/나눔 및 신앙적 대화'가 44%로 가장 높았고, '가족 기도' 41%, '성경 읽기/큐티 나눔' 34% 순으로 응답했으며, 가정예배를 드린 비율은 20%로 가장 낮았다. 활동률이 가장 높은 '성경 공부'도 그 비율이 절반에 못 미쳐, 많은 가정이 가족과 함께 하는 신앙 활동을 활발히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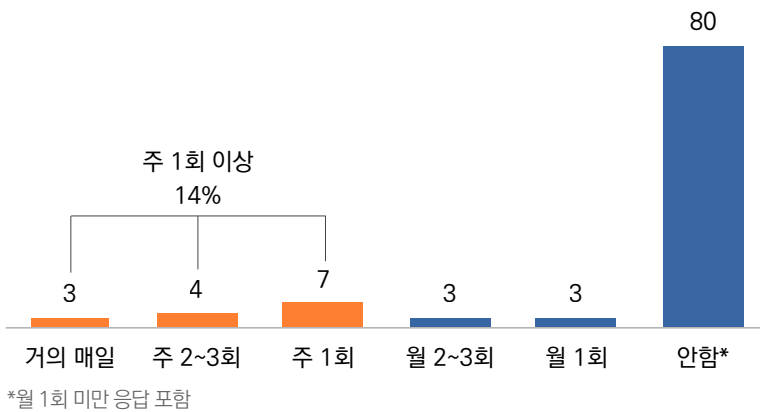
[그림] 지난 한 달간 가족과 함께한 신앙 활동 (2인 가구 이상 응답자, %)



주 1회 이상 가정예배 드리는 가정, 14%!

- 그렇다면 가정예배는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을까? 전체 응답자 중 월 1회 이상 드리는 비율은 모두 20%로 나타났으며, 그중 주 1회 이상 드리고 있는 비율은 14%로 7가구 중 1가구 꼴이었다.
- 앞에서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 노력하는 비율과 주 1회 이상 가정예배 드리는 비율이 14%로 동일한 점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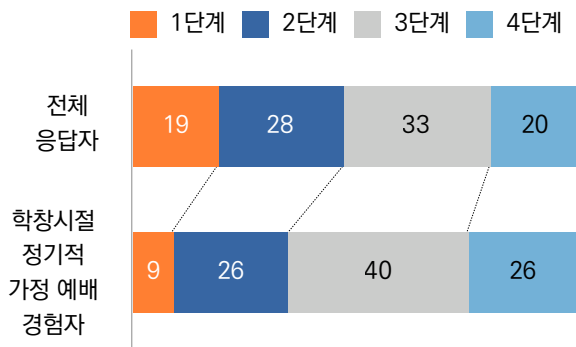
[그림] 가정예배 빈도 (2인 가구 이상 응답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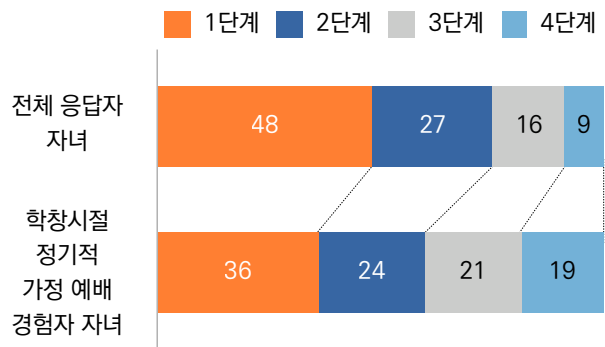
어릴 적 가정예배 경험자, 비경험자보다 신앙 수준 높아

- 학창 시절 가정예배 경험자와 그 자녀의 신앙 수준을 전체 개신교인 평균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학창 시절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경험한 자'와 그 자녀의 경우 전체 평균보다 신앙 단계 수준이 더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정예배 경험자 자녀의 경우, 신앙 수준 4단계 비율이 19%로 전체 자녀 신앙 평균(9%) 대비 2배 이상 높아 주목된다.
- 학창 시절 가정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경험자 본인과 자녀의 신앙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나 정기적 가정예배의 신앙적 유효성을 입증하는 결과였다.

[그림] 학창 시절 가정예배 경험자의 신앙 수준 (전체 응답자와 비교, %)



[그림] 학창 시절 가정예배 경험자의 자녀 신앙 수준 (전체 응답자 자녀와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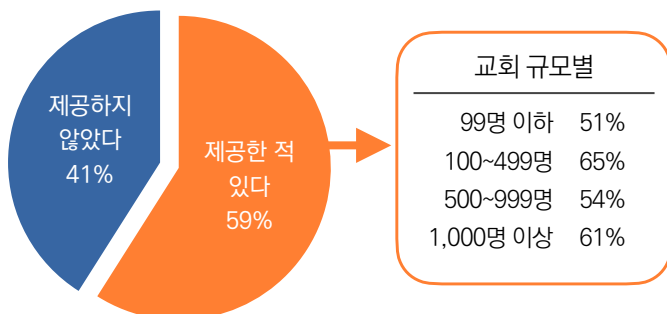


Note) 신앙의 단계가 높을수록 신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며 다음의 4단계로 구분
 1단계 :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까지 종교가 내 삶에 큰 비중 차지하지 않음
 2단계 : 하나님을 믿으며 주일예배에 성실히 참여하나, 아직은 신앙에 대해 배우가는 중임
 3단계 :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경의 인도를 따라 개인 경건 생활을 잘 해나가는 편임
 4단계 :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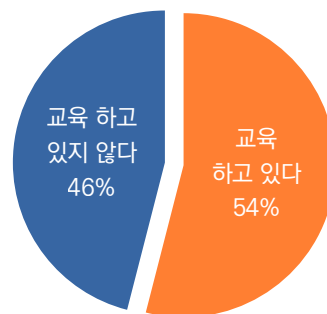
05 [가정 신앙을 위한 교회의 역할] 가족 신앙 활동 자료 제공하는 교회, 10곳 중 6곳!

- 출석 교회에서 가족 신앙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를 묻은 결과, '제공한 적 있다' 59%, '제공하지 않았다' 41%로 교회 10곳 중 6곳 정도에서 가족 신앙 활동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별로 보면 교인 수가 100~499명 교회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65%로 가장 높았다.
- 다만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비율은 절반 남짓(54%)으로 나머지 46%는 자료는 제공받았으나 가정 신앙 활동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육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출석 교회의 가족 신앙 활동 자료 제공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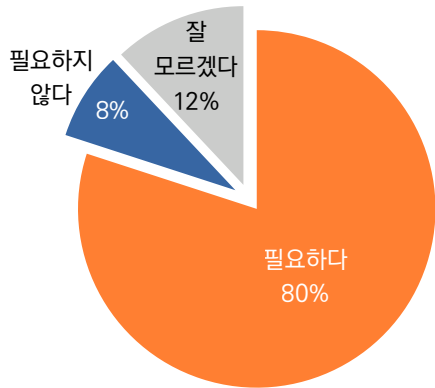
[그림] 출석 교회의 가족 신앙 활동 자료 활용 방법 교육 여부 (제공한 적 있는 교회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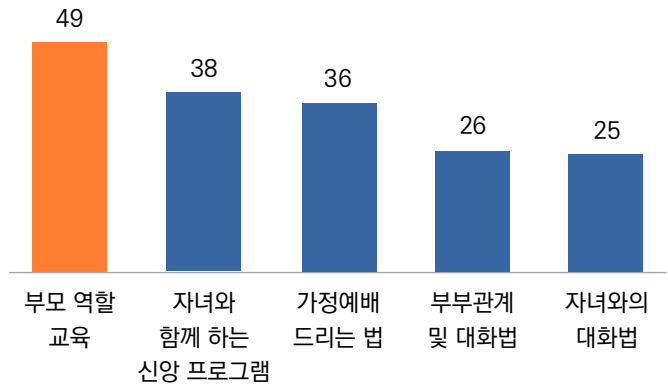
영적인 가정 위해 교회의 ‘부모 역할 교육’ 필요!

- 영적인 가정을 위한 교회 역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필요하다(80%)고 응답했으며, 가정을 영적으로 세우기 위해 교회가 지원해야 할 사항에 관해서는 ‘부모 역할 교육’을 49%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와 함께 하는 신앙 프로그램’ 38%, ‘가정예배 드리는 법’ 36% 등의 순이었다.
-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부모의 신앙적 견고함과 부모됨의 역할이 가정 내 자녀들의 신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연관지어 파악할 수 있는데, 부모가 가정 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부모역할 교육’이 교회 내에서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데이터이다.

[그림] 영적인 가정을 위한 교회 역할 필요성



[그림] 영적인 가정을 위한 교회의 지원 사항
(영적인 가정 위한 교회 역할 기대자, 1+2순위, 상위 5위, %)



최근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조사 결과에서 가족 종교화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초 우리 연구소에서 조사한 크리스천 중고생을 대상으로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를 묻는 질문에 모태신앙을 포함 초등학교 이전에 나왔다는 응답이 무려 80%에 달했다.¹⁾ 개신교 역사가 길어지면서 개신교인 가족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과 이와 반대로 전도를 통해 새로 유입되는 신자가 감소하는 탈종교화 현상이 맞물린 결과이다.

한국교회의 가족 간 신앙 계승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교회보다 더 큰 가족의 신앙 영향’이다. 현재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개신교인 66%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꼽았다. 학창 시절 신앙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부모님이 67%(어머니 54%, 아버지 13%)인 반면 목회자는 13%에 불과했다. 한목협의 ‘2023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10년 사이 신앙 성장에 도움받은 것으로 ‘교회 예배/설교’는 절반 이상 감소한 반면(64%→28%), ‘가족’은 2배 이상 증가했다(9%→20%). 가족이 교회보다 더 큰 신앙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들이다.

다음으로 ‘신앙 수준의 대물림’이다. 신앙 수준을 4단계로 책정하여 본인과 부모의 신앙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해 보니 두 그룹간 신앙 수준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즉 나의 신앙 수준이 1단계이면 부모의 신앙 수준도 1단계가 가장 많았고, 나의 신앙 수준이 4단계이면 부모의 신앙 수준도 4단계가 가장 많았다.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앙 수준도 본인의 신앙 수준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모 세대의 신앙 수준이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이어지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신앙 계승의 약화 현상 또한 감지되고 있었다. 본인의 신앙이 모든 면에서 부모의 신앙보다 못하다고 평가했으며, 신앙교육도 부모에게 받은 경험(75%)보다 본인이 자녀에게 하는 비율(64%)이 더 낮았다.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 매우 노력한다’의 비율은 14%에 불과했는데, 이는 다른 청소년 조사¹⁾에서 ‘부모와 신앙적 대화를 자주 한다’ 결과(12%)와 거의 일치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앙 계승의 약화는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심화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50대는 자녀 신앙 양육을 위해 노력하는 비율이 71%인 반면 40대는 51%, 30대 이하는 43%에 그쳤다. 저출산, 탈종교화, 개신교인 비율 감소로 향후 한국교회의 양적 축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신앙 계승의 중심 세대인 3040세대의 신앙 약화는 한국교회의 질적 측면의 약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가족 종교화가 더욱 심화하고 신앙의 계승이 약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우선 부모세대인 3040세대의 신앙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부모교육이다. 자녀의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이다. 이는 자녀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은 어머니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상대적으로 자녀 신앙 교육에서 보조적 역할을 하는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 때 자녀 신앙 교육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다.

또한 자녀들이 교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신앙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가족 신앙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앙에 있어 부모의 자녀 교육은 강조되는데 정작 자녀 교육을 위한 안내나 교육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사가 가장 시사하는 것은, 어릴 적 정기적으로 가정예배를 경험한 자일수록 그들의 자녀 신앙 수준이 높다는 점이다. 가정예배의 신앙 계승 효과를 증명하는 데이터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예배를 주 1회 이상 드리는 가정은 단지 14%에 불과하다. 가정예배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인데 이를 위한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가정에서의 신앙 계승 약화는 한국교회의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3040세대의 신앙 육성과 가정 신앙 활성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1) 목회데이터연구소, ‘2024 크리스천 중고생 신앙 의식 조사’, 2023.06.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미국 개신교의 가족 종교화 실태
2. 2024 청년의 삶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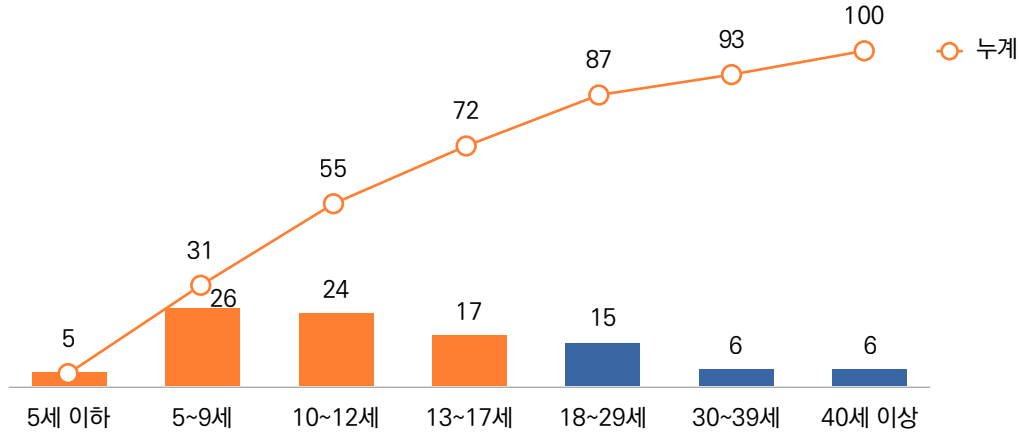


[미국 개신교의 가족 종교화 실태]

미국 개신교인 10명 중 7명, 18세 이전에 신앙 가져!

- 미국의 복음주의 개신교인이 어떻게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영적 여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최근 발표되어 이를 살펴본다. 먼저 '신앙을 갖게 된 시기'를 물은 결과, 10세 전후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국의 성인 기준 연령인 만 18세 전에 신앙을 갖게 된 경우가 미국 복음주의자 10명 중 7명(72%)에 달했다.

[그림] 신앙을 가지기 시작한 나이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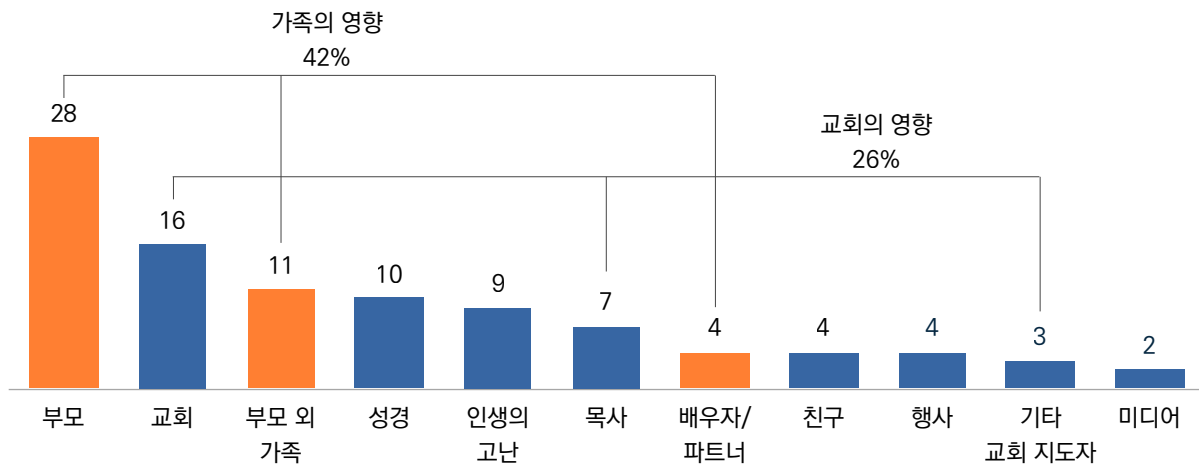


※출처 : GREYMATTER RESERACH/Infinity Concepts, The Spiritual Journey : How Evangelicals Come to Faith, 2024.
 Note) 복음주의 개신교인(Evangelical Protestants): 남침례교, 오순절, 예수재림교, 성결운동 등의 교인을 지칭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교회’보다 ‘가족’ 영향이 크게 높아!

- 그렇다면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것은 무엇일까? 자신이 신앙인이 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것으로 ‘부모(28%)’를 포함한 ‘가족의 영향(42%)’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 복음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주요 계기를 가족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가정 내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림]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한 결정에 가장 영향을 끼친 것 (미국 복음주의 개신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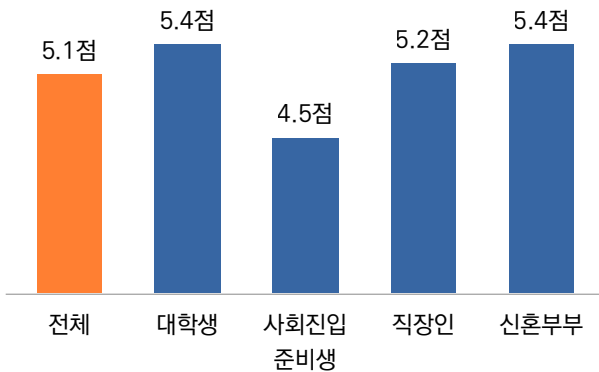
※출처 : GREYMATTER RESERACH/Infinity Concepts, The Spiritual Journey : How Evangelicals Come to Faith, 2024.



[2024 청년의 삶 전망] 한국 청년의 작년 한 해 삶 평가, 10점 만점에 5점!

- 현재 정부에서 다수의 청년정책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청년의 체감 효과는 미미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 청년 조사 결과(청년재단/서던포스트)가 나와 이를 살펴본다. 청년으로서의 삶을 10점 만점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하게 한 결과 전체 평균은 5.1점으로 중간 점수인 5.5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 청년 유형별로 보면 ‘대학생’과 ‘신혼부부’가 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진입 준비생’이 4.5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모든 유형이 5.5점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림] 2023년 청년으로서의 삶 평가(10점 척도 평균)



※출처 : 청년재단, 청년정책·이슈 토크아보기 설문조사 결과, 2024.02.19. (전국 거주 19~39세 청년 총 3,000명, 서던포스트, 온라인 조사, 2023.12.06.~12.19.)

2023년 가장 중요했던 청년 이슈, ‘취업, 주거, 부채’!

- 2023년 가장 중요했던 청년 이슈를 묻은 결과 ‘사회진출 지연 청년 증가(25%)’, ‘청년 주거 불안(25%)’, ‘청년부채 증가(23%)’가 비슷하게 높아 ‘취업, 주거, 부채’ 등 경제적 요인이 2023년 청년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나타났다.
- 청년 유형별로 보면 대학생과 사회진입 준비생은 ‘사회진출 지연 청년 증가’를, 직장인과 신혼부부는 ‘청년 주거 불안’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2023년 가장 중요했던 청년 이슈 (상위 4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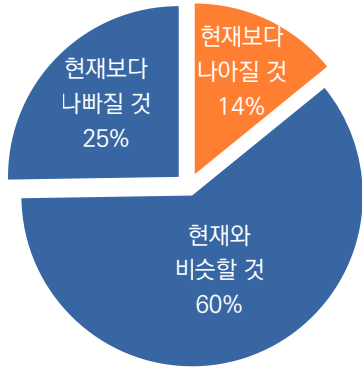
	사회진출 지연 청년 증가	청년 주거 불안	청년 부채 증가	세대 간 인식 격차 발생 및 확대
전체	25	25	23	20
대학생	31	24	17	22
사회진입 준비생	36	19	15	19
직장인	22	27	25	20
신혼부부	23	27	27	18

※출처 : 청년재단, 청년정책·이슈 토크아보기 설문조사 결과, 2024.02.19. (전국 거주 19~39세 청년 총 3,000명, 서던포스트, 온라인 조사, 2023.12.06.~1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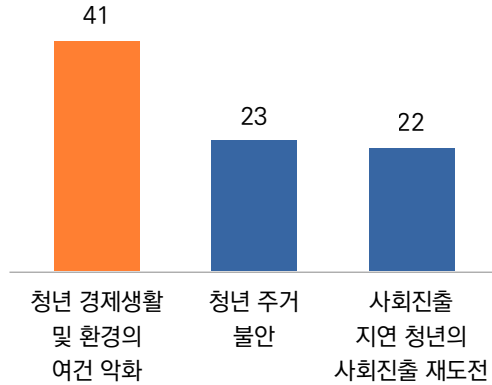
2024년 청년의 삶 예상, ‘더 나아질 것’ 14%!

- 2024년 청년의 삶은 현재 대비 어떠한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청년의 60%는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25%는 ‘현재보다 나빠질 것’, ‘현재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 2024년에 가장 중요해질 청년이슈로는 ‘청년 경제생활 및 환경의 여건 악화’가 4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청년 주거 불안’ 23%, ‘사회진출 지연 청년의 사회진출 재도전’ 22% 등의 순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전년도 이슈와 순위상 변동은 있었으나 2024년 역시 청년들은 취업, 주거 등을 포함한 경제적 측면을 가장 염려하고 있었다.

[그림] 2024년 청년의 삶 예상



[그림] 2024년 가장 중요해질 청년이슈 (상위 3위, %)



※출처 : 청년재단, 청년정책 이슈 토크보기 설문조사 결과, 2024.02.19. (전국 거주 19~39세 청년 총 3,000명, 서던포스트, 온라인 조사, 2023.12.06.~12.19.)

청년들이 희망하는 2024년, ‘풍족한’ 해이길!

- 청년들이 희망하는 2024년은 어떤 해일까? 2024년 희망 이미지를 취합한 결과, ‘풍족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공적인’, ‘나아지는’, ‘안정적인’, ‘취업되는’, ‘행복한’, ‘취업되는’ 등의 순이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풍족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준다.

[그림] 2024년 희망 이미지*



최다 선정 키워드(상위 10개)

풍족한	11%	행복한	6%
성공적인	7%	희망찬	4%
나아지는	7%	걱정없는	4%
안정적인	7%	잘사는	3%
취업되는	6%	도전하는	3%

※출처 : 청년재단, 청년정책 이슈 토크보기 설문조사 결과, 2024.02.19. (전국 거주 19~39세 청년 총 3,000명, 서던포스트, 온라인 조사, 2023.12.06.~12.19.)

*주관식 기입 결과로 글자 크기가 클수록 많이 선택한 keyword임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577호\(2024년 3월 1주\)](#)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기대, 5개 정당별 총선지지 의향 여부

[전국지표조사\(4개 주요 조사기관\) 리포트 제117호\(2024년 3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정당지지도,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 22대 총선 인식

[경실련 "전과·피고인 신분 현역의원 88% 공천 심사 통과"](#)

연합뉴스_2024.3.7.

[민주·조국당 합치면 여야 지지율 팽팽... 출발선으로 돌아갔다](#)

조선일보_2024.3.8.

사회 일반

[노인 절반은 '가난'...연금 합쳐도 가처분소득 연 804만원분](#)

연합뉴스_2024.3.7.

["한 번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한국인 역대급으로 빠졌다](#)

한국경제_2024.3.4.

[임차인 월세평균 124만원...임대인 1년 월세수입 1억8천만원](#)

연합뉴스_2024.3.5.

[서울 상가 임대료 '명동' 1위 내렸다...제일 비싼 곳은 북창동](#)

중앙일보_2024.3.7.

['세금, 기본 의무이니까 전부 낸다' 10년새 절반 가까이 감소](#)

연합뉴스_2024.3.7.

["오사카가 아니었네?" 한국인이 가장 만족한 일본 여행지 어디](#)

매일경제_2024.3.8.

[노력하면 된다고? 부모가 의사면 자녀도 의사될 확률, 무려 24배](#)

중앙일보_2024.3.8.

["외로움 느끼는 고령층에 디지털 리터러시 더욱 필요"](#)

연합뉴스_2024.3.9.

[의대 정원 증원에 48% "2천명은 늘려야", 36% "더 적게 늘려야"](#)

연합뉴스_2024.3.6.

[韓 금융 이해력 상위권인데...비변 변경 등 '디지털 보안'은 낙제점](#)

중앙일보_2024.3.7.

경제 · 기업

[한국, '일하는 여성 환경' 12년째 선진국 중 가장 가혹](#)

연합뉴스_2024.3.7.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저출생 주요인 경력단절… 年 44兆 경제적 손실”](#)

문화일보_2024.3.4.

[男 100만원, 女 69만원… 韓 임금격차 멕시코의 2배](#)

동아일보_2024.3.9.

[“승진하면 임신 말라”…‘0.65명 쇼크’ 아랑곳 않는 직장들](#)

중앙일보_2024.3.4.

[남성 육아휴직자 50% “눈치보였다”…12개월 넘게 사용 7.6%뿐](#)

한겨레_2024.3.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19% 증가… “기업-근로자 모두 만족”](#)

동아일보_2024.3.5.

국제 · 환경

[고립주의 기우는 美…23%만 “세계문제 해결에 더 적극 역할해야”](#)

연합뉴스_2024.3.7.

[일흔 넘어야 나라 이끈다?…세계인구 절반의 지도자가 70대 이상](#)

중앙일보_2024.3.9.

건강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 하루 9000보 걸어야 심혈관질환 사망률 ↓”](#)

동아일보_2024.3.6.

기독교 · 종교

[선교사 10명 중 3명 10년내 은퇴하는데… 노후 무대책](#)

더미션(국민일보)_2024.3.8.

[청소년 절반 이상 “동성애 인정해야” 충격](#)

더미션(국민일보)_2024.3.7.

기획기사 : [교회의 척추 3040을 세워라], 더 미션(국민일보)

[육아·직장·가사 ‘3중고’에… 후순위로 밀리는 교회 출석](#) _2024.3.4.

[방과 후 돌봄교실로 ‘직장맘’ 돕자 교회 등록까지](#) _2024.3.5.

[“공적 가치 중요, 권위주의엔 적대적인 그들… 재량권 주고 리더로 세워질 때까지 지원하라”](#) _2024.3.6.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랑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더교회, 밀양남부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영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S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연신환기(주),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빛소금교회(담임목사 김용태), 임귀호, 이충현, 한승진, 서희열, 박정연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3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시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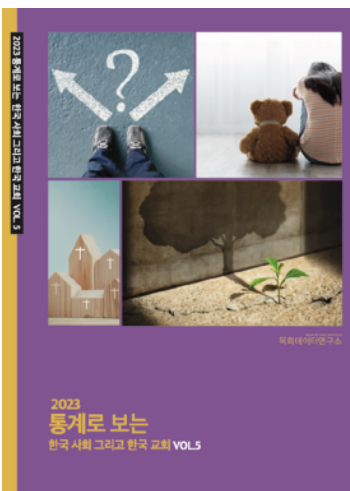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원,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숭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국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연구소 소식

- 2023년 작년 한해 동안의 <넘버즈>를 모아 엮은, <2023 통계로 보는 한국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VOL.5>를 출판하였습니다. 책 출판을 위해 재정 후원해 주신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목사 이영훈)에 감사드립니다.
- 후원자 중 아직 책을 받지 못한 분들은 연구소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02-322-0726)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